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6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먹구름 가득하던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리시는 하나님, 부질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그림 하나 그려주십시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먹구름이 너무나도 짙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그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시고 희망과 사랑의 밝은 빛을 비취주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일쑤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 뿐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57. 시편130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한성건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2(통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성경봉독 I. 창32:22-31 최보미 학생

II. 요8:31-38 윤성종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싸움을 이기는 싸움 손성현전도사

II. 당신은 자유인인가?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327(통361). 주님 주실 화평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늘 애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안일한 일상을 자유로 착각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참 자유는 진리를 갈구하는 자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구도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민족 화해 주간 예배
기도 : 박혜경 권사	말씀 : 권오성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유미 선생 윤석철 장로	전수정 학생 김 극 집사

7월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임주빈 박혜경 최현옥 김정애
	헌금위원	김인걸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진정한 지식과 정보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비교적 징역 초년의 일입니다만 밤마다 바깥세상에 관한 꿈을 꾸다보면 몸은 비록 갇혀 있더라도 꿈을 꾸는 시간만큼은 감옥을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징역의 반은 바깥에서 사는 셈이 되리라고 자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바깥세상에 관한 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아마 사오 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꿈속에서마저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꿈은 역시 당신의 말처럼 그림자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강가에 앉아서 서울에는 없는 저녁 으스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그때의 꿈을 생각합니다. 노을에 물든 수면에 드리운 수영(樹影)과 수면을 가르며 흐르는 청둥오리들의 조용한 수영(游泳)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비친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쉬이 깨트려지는, 지극히 얇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그때의 꿈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림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환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상미학의 천재가 아득한 미래의 ET와 먼 과거의 공룡을 우리들에게 안겨준 바 있습니다. 비단 ET나 공룡만이 아니라 전자정보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들에게 펼치는 가상공간(cyber space)의 세계도 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계는 이제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안방의 탁상에서부터 방문 열듯 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의 삶은 통째로 이 도로 위를 질주하게 되리라는 예단마저 없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달려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우리의 세계를 무한히 확대해주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고속도로는 모든 '거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각, 취미, 사상까지도 바꾸어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러한 변화에 관하여 '거리'의 제거가 '인간관계'마저 제거함으로써 도리어 소통(疏通)이 경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달려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더욱 걱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첨단과학은 인간이 어디로 향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간의 정체(正體)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한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에 불과하다는 당신의 극언에 공감합니다.

.....

나는 해 저무는 물가에 앉아서 당신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시대의 집단적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환상이고 그림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활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나간다’는 짧은 시구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밤의 꿈을 세숫물에 헹구어내듯이 삶은 그 투박한 질감으로 우리를 모든 종류의 잠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어느 연기자의 ‘갈채와 통곡’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며 이 엽서를 마치려 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와 함께 막이 내리면 그는 홀로 분장실에 남아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통곡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갈채는 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바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무대 위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통곡의 이유였다고 하였습니다. 텅 빈 분장실에 홀로 남아 쏟아내는 그의 통곡 때문에 당신은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통곡은 그를 인간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식과 정보는 오직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한 그루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옛 사람들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하는 ‘무감어수’(無鑒於水)의 경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표면에 천착하지 말라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감어인’(鑒於人).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업 속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보기를 이 금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동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중에서

연꽃 구경

연꽃이 피면
달도 별도 새도 연꽃 구경을 왔다가
그만 자기들도 연꽃이 되어
활짝 피어나는데
유독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만이
연꽃이 되지 못하고
비빔밥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받아야 할 돈 생각을 한다
연꽃처럼 살아보자고
아무리 사는 게 더럽더라도
연꽃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죽고 사는 게 연꽃 같은 것이라고
해마다 버르고 별러
부지런히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인데도
끝내 연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연꽃들이 사람 구경을 한다
해가 질 때쯤이면
연꽃들이 오히려
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 정호승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우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조병무
 송양진 김준우 우순덕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박시내 김정섭 김희진 박홍재 맹은선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안종일
 정현주 왕성한 강순배 윤미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정복순 정한구
 왕영순 서수진 권미숙 조관행 홍선희 전해리 전세종 오정숙

월정헌금:

권미정 김남종 오복순 김미순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범희 박미영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이봉배 이인웅 오송경 장재영 김재영 전영자
 정원석 김현영 문희창 최동운 박찬정 이종현 조순덕 이경남 김극

감사헌금:

김기석 전세종 김정민 전영규 왕성환 강순배 전해리 김미화 유지은
 이종현 김성한 조영순 권미숙 장재영 전성오 이인섭 박병구 송동준
 김진경 김지윤 무명2

녹색꿈 헌금:

김기석 강미선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김정섭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오정숙	
시온	박효선	허정운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2. **민족화해주간예배** : 민족화해주간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화해통일 위원회가 주관하는 예배를 15일(수) 저녁 7시 30분에 우리교회에서 드립니다.
3. **동호회** : 다음 주일 오후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4. **연합속회** : 이번 속회는 금요일(17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가나안 속 식사당번 - 베다니 속
5. **파송예배** : 개척자들의 평화캠프 참가자 파송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17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평화의 길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수박과 같이 큰 과일은 한 번에 먹기 어렵습니다. 이웃과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예루살렘 속)

* 설거지 봉사 : 박병구 김기성 (다음 주 : 윤종권 박권동)

<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 >

- 유치부 성경학교 : 7월 25일, 교회
- 아동부 여름 캠프 : 7월 26일~29일, 홍천 은현수련원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 7월 31~ 8월 2일, 인제 원대리교회
- 청년부 여름 농활 : 8월 6일~9일, 천안 단비교회

새교우 소개

손성윤 (4남선교회)

고미신 (7여선교회)

송 샘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